

漢字문화권 아동문학의 발전방향 모색

韓·中·日 아시아아동문학심포지움 지상중계

21세기 아동문학과 아동도서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아시아 아동문학심포지움이 지난 8월 12일 서울 라마다올림픽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아동문학학회(회장 이재철)가 주최하고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아동문학가 및 관련학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심포지움은 1, 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분과별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최인석 교수(인하대)가 사회를 맡은 1부에서는 '21세기의 아동도서와 아동문학'이라는 테마로 일본의 鳥越信, 중국의 蔣風, 대만의 林煥彰, 한국의 조대현씨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四方晨씨의 '한국을 소재로 한 일본의 아동문학' 특별강연이 있었다.

2부 분과별 토론은 '각국의 아동문학의 역사와 현황', '韓·日 아동극의 현황'이라는 주제하에 2개의 분과로 나누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사회는 최지훈(아동문학연구가) 이영준(한국연극교육연구소장)씨가 각각 맡았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 들어가기 앞서 주최측 대표인 이재철씨는 인사말을 통해 "전쟁과 침략으로 오욕된 아시아의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아동문학을 통해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공동관심사를 토론함으로써 아동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번 심포지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아동문학계로서는 처음으로 주최한 국제대회이며 한자어문화권이라는 공통성을 지닌 아시아 4개국 아동문학의 발전을 위한 공동모색의 계기가 되었다는데서 그 의미를 평가받고 있다.

21세기 아동문학과 아동도서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던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아동문학계가

처음으로 주최한 국제대회로서,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아시아 4개국 아동문학의 발전을 위한

공동모색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받고 있다.

다음에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됐던 주제논문 4편과 四方晨교수의 특별강연 요지를 정리해 실는다.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아동문학의 위상

조대현 = 1922년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로 근대적 의미의 아동도서의 발행이 시작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아동문학은 그 양적인 측면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질적인 성장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아동문학이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재미성'의 결여에 있다. 이는 우선 시대변화에 대한 작가들의 적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아울러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출판 및 독서환경의 미성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21세기에 접어들면 한국사회도 더욱 고도화된 기술집약의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고도의 산업화 시대를 앞두고 아동문학작가



지난달 12일 서울 라마다올림픽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아동문학대회.

들이 해야 될 몇가지가 있다. 첫째, 사고의 정체성에서 탈피, 세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철학을 통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흥미와 감각에 부응하는 작품을 써야 한다. 둘째, 문장표현, 줄거리 구성 등 기법면에서 일대 변모가 있어야 한다. 셋째, 작품의 길이는 연령별로 적정선을 찾아 짧게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영상매체와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도서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문학의 개념자체가 역사, 인문, 자연, 사회과학, 일반교양, 예술 등으로 확대되어가야 한다.

새로운 세기의 일본 아동문학

鳥越信 = 1960년 石井桃子 등 6명의 아동문학가가 공동집필한 「어린이와 문학」은 당시 일본 아동문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재미성'과 '용이성'이라는 두개의 기준으로

일본의 아동문학을 다시 측정하고 전통적인 일본의 아동문학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로부터 30년, 앞으로 10년이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현재 일본의 아동문학은 과연 순조롭게 발전일로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창작이 꽃피고 있으나 30년을 지나는 동안 '재미성'을 단순히 손끝의 기술로 생산해낸다고 생각하는 기술주의적 경향은 의연히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輕, 薄, 短, 少'의 경향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경향은 최근 유행, 마녀 등의 캐릭터 등장, 개그로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작품이 범람하고 있는 현상과 맞물린다. 이제 일본은 30년 동안의 정체를 탈피하는 제2의 전통극 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대만 아동문학

林煥彰 = 1949년 중국이 대만과 대륙으로

하늘땅 시선 1

「키플링 시선집」

서강북 옮김 신국판 / 174쪽 / 값 2,500원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하늘땅 신서 4

《출간예정》

국내독점판매계약

A. 사하로프 회고록

소련의 현대사, 20세기의 거인

동학농민전쟁 관련논문집 5개년 출간계획안내

기획/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판/도서출판 하늘땅

도서출판 하늘땅에서는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오는 194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농민전쟁에 관한 각종자료집, 논문집, 연구입문서, 답사보고서, 문예창작물 등을 기획출간해 되었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 1990년 하반기엔 우선 연구논문모음집(상)(하)를 출간하고 계속하여 5년간 농민전쟁의 역사적의미 고찰 및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한 과학적연구의 성과물들을 내놓게 됩니다.

생활총서 1 도서출판 하늘땅

정보를 알면 내집이 생긴다

내집마련 상담실편 연속중판

4×6배판 / 144쪽 / 값 3,300원 거듭

하늘땅 소설선 1

바늘반지 연속중판

원명희 장편소설 거듭

신국판 / 312쪽 / 값 4,000원

하늘땅 신서 3

인간에 대한 예의

비츨라프하벨 지음 / 이상영 옮김

신국판 / 240쪽 / 값 3,500원

하늘땅

‘교과서의 역사’를 ‘즐기는 역사’로

대중교양지 월간 「역사산책」 창간대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와 그 주변소재를 폭넓게 발굴, 토론회와 함께, 풍부한 읽을거리와 다양한 교양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지식을 터득케 하는데 주안점을 둔 역사교양지 월간 「역사산책」이 9월호로 창간됐다.

李勝羽씨를 편집인 겸 주간으로 하여 범우사(대표 윤형두)에서 발행된 이 「역사산책」은 특히, 지극히 어렵고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우리 역사를 「교과서의 역사」에서 「즐기는 역사」로 생활화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주된 편집내용도 ①생활주변의 역사를 출발점으로 하여 북한을 포함한 각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인물·풍속 등에 대한 재조명 ②역사학과 그 인접분야 연구성과를 대중화하는 기획 ③한민족의 대외교섭사와 동서양의 문명사 및 사회사 ④기타 전통문화 및 각종 문헌사료의 발굴소개 등으로 채워져 있어, 「한국학보」 「한국사시민강좌」 「역사비평」 등 학술지적 성격이 강한 기와의 이 방면 잡지들에 비해 평균적인 독자가 훨씬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편집체제에 있어서도 4x6배판 지면에 울췌러, 그리고 월간지로는 드물게 중철제본을 택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최근 해군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거북선 인양작업과 관련해 그 타당성과 현실성을 파헤친 「거북선神話, 베일 벗을 것인가」를 비롯해 이른바 「任那日本府」의 실재문제, 을지문덕의 출신을 따져본



「을지문덕은 몽고계 귀화인인가」 등의-기사와 함께 이기백·변태섭교수의 무게있는 논문들을 실는 한편, 「역사의 마을」 「한국고전의 무대」 「다시 쓰는 平民한문학사」 「故事인물기행」 등의 기획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한 빌미가 평생을 갈라놓은」 「역사상의 라이벌」 김춘추와 왕건의 경우를 살핀 「역사에서 본 한반도 통일전략」 李如松 전설에서 민중의 역사의식을 추출해본 「설화와 역사」, 燕行使들의 애환이 어던 熱河로 떠난 「역사기행」, 그리고 통독을 앞둔 독일제국의 역사적 배경을 살핀 「세계사프리즘」 및 연재물로 기획되고 있는 「근대유럽 지식인 사회 풍속도」 등이 좋은 읽을거리.

「기왕에 간행되어온 역사잡지들의 넘침과 모자람을 보완해서 역사지식의 대중화와 올바른 한국사인식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역사산책」을 창간하게 됐다」는 것이 발행인 윤형두씨의 말.

정치적인 분리에 들어가면서부터 중국의 아동문학도 전혀 다른 험난한 두갈래 길을 걷게 되었다. 중국대륙 본토의 아동문학은 무산계급 투쟁을 위한 도구가 되어왔다가 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여러가지 제한과 정치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문학예술의 본질로 돌아왔다. 대만의 아동문학은 중국문학의 우수하고 훌륭한 전통의 근원이 단절되고 동시에 외래문화의 침투가 가세되어 그 방향성을 잃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대만의 아동문학은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고 본토의식을 각성함에 따라 창작을 중시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10년은 이러한 본토의식, 자아형식의 창작을 강조하는 정신 외에도 정치적 변화에 따라 개발, 교류가 진행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융합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이의 결과로 대만과 대륙의 아동문학의 질과 양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대만의 아동문학이 「세계 중국어 아동문학」으로 확대될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소재로 한 일본의 아동문학

四方晨 = 한국을 소재로 한 일본 아동문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在日 한국인의 실상을 그린 작품으로 「효꼬단의 山羊」(長崎源之助), 「빨간머리 꼬마기자 친구들」(赤木由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침략시대, 침략의 역사를 테마로 한 작품도 다수 있다. 「국경, 무궁화와 모젤」(四方晨), 「슬픈 砦」(和田登)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단순히 가해의 역사를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역사적 아이덴티티를 묻고자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은 과거부터 여러가지 교류가 있었으며 한국의 민담, 민요는 일본의 문학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동문학의 교류는 의외로 적다. 민화집 「파를 심는 사람들」(金素雲), 그림책 「다께루」(米倉勸加年), 「도깨비가 된 바위」(金兩基) 등이 눈에 띄 정도이다. 아동문학의 한·일 교류에 있어 또 하나의 과제는 현대의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이 적다는 사실이다. 이승만 시대의 이야기 「서울의 봄이여 안녕」(韓丘庸), 남북분단의 아픔을 그린 「아리랑 과랑새」(遠藤公男) 등이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앞으로의 일본의 아동문학에서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환타지 형태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태양의 어머니」(浜다가야), 「멀망한 나라에의 여행」(三木卓), 「龍宮城의 안누나」(四方晨) 등이 그것으로 이들은 각기 연작장편, 환타지 형태, 모험, 추리의 엔터테인먼트 문학의 형식을 이용, 역사의 참모습을 규명해내고 있어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한편 「밤중에 본 구두」(韓丘庸譯)와 같은 형태로 한국의 현대화를 출판한 것은 일본 아동문학에 큰 자국적 소재가 되고 있다.

— 박남정 기자

하늘땅신서 2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전 유럽통합의 동방정책을 주창한 빌리브란트의 대외교략 완역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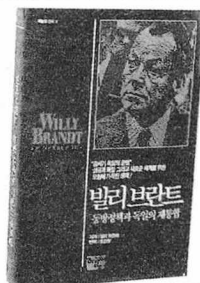
빌리브란트

동방정책과 독일의 재통합

그는 이미 이 책에서 이미 「나는 라이프치히(東獨의 제 2도시)와 동독의 다른 도시들에서 어느날 수백명이 아니라 수십만명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들고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불과 석달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저자 빌리브란트는 戰後 40년간 독일및 유럽정치 주역의 한사람이었던 까닭에 그의 회고록은 자연스럽게 독일문제를 둘러싼 東西 관계사를 그의 시각에서 다루었고, 그가 만난 영웅호걸들의 일화도 흥미진진하게 소개된다.

— 朴權相 (언론인) 서평에서 —



연속중판 거듭

국내독점 판권계약

정경섭 (서독 본대학 정치학박사) 번역
신국판/541쪽/값 6,800원

도서출판 하늘땅

하늘땅
서울특별시 중로구 혜화동 26-39
TEL/764-4398 (편집부), 764-4957 (영업부)
FAX/743-0541

하늘땅신서 1

보리스엘친

告白

국내독점 판권계약

소련의 급진개혁과 기수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엘친의 충격적수기

고르바초프의 논적, 소련의 제 2인자 — 최근 소련 최대의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고르바초프와의 연립정부 파트너로 부상된 그는 누구이며,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미국, 영국, 일본등지에서 출간과 동시에 초베스트셀러가 된 책 「고백」 —

금년말 한국 방문예정!!

감역/조영환 박사

신국판/272쪽/값 3,800원